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국가에서는 어제 오사카부를 비롯하여 7 개의 부현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 을 발령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중 수도권을 뒤잇는 발령으로 기간은 2 월 7 일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는 이것에 대하여 감염 상황의 독자 지표 “오사카 모델” 의 비상사태를 나타내는 레드 스테이지를 “2” 로 이행해 기간을 오늘 1 월 14 일부터 긴급사태 선언과 같은 2 월 7 일까지로서 그 대응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부민의 여러분에 대해 불요불급의 외출 및 이동을 제지하시도록 철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오사카시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음식점이나 유흥 시설의 영업 시간 단축의 요청이 오사카부 전역에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라카타시 시내에서도 종료 시간은 오후 8 시까지 주류의 제공은 오후 7 시까지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방침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께 주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시 소관 시설의 이용이나 시 주최 이벤트의 중지 또는 연기의 조치에 대해서도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과 같은 2 월 7 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시청 업무도 출근자 수의 최대 7 할 삭감에 노력하는 것으로 해 가능한 한 재택 근무 텔레 워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염 확대는

새해가 되어도 전혀 들어가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우리 시의 감염자수도 연일 이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미 1000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부로는 중증자의 증가와 함께 의료 현장의 궁핍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구해질수 있는 생명도 구할수 없는 않는 상태에 빠져 버릴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는 한층 더 불편을 강요하게 됩니다만 이 상황을 이해하셔 긴급사태 선언 중의 불요불급의 외출이나 이동의 자숙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 괴로운 국면을 힘을 합해 극복합시다.

레이와 3년 1월 14일

히라카타 시장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